

#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5800억 증액... 2단계 속도낸다

### 총사업비 2조 7935억원으로 협의...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 수완~첨단 840m 구간 지하화...단계별 개통 시기는 늦춰져

물가상승, 지하화 구간 증가 등으로 급증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2단계 공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를 기존 2조 2114억원에서 5821억원 늘어난 2조 7935억원으로 증액했다. 애초 건의한 2조 8302억원에 367억원 못 미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한 금액을 빼고는 요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2010년 최초 사업비 확정 후 물가 상승, 안전장치 강화와 관련한 법 개정, 지하화 구간 증가 등에 따른 현장 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만큼 타당성 재조사 없이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수완지구~첨단지구 840m 구간을 지하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수용됐다. 광주시는 기존 지상화 방식으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구간 주변 개발이 완료한 상황에서 지상에 도시철도가 들어서면 주민 민원이 폭주할 수 있어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해 왔다. 이번에 총사업비가 증액되면서 2호선 건설 공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완공 시기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는 대로 2단계 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2019년 9월 착공한 2호선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단계별 개통 시기는 기존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 초기 1단계는 2023년, 2단계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단계별로 각각 3년, 5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협의를 잘 진행돼 요청 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행정 절차와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은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을 잇는 17.06km, 2단계는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 20km다. 3단계는 백운광장~진월~효천역 4.84km 구간으로 계획됐지만, 막대한 사업비 등으로 건설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풍암호, 미래 환경 유산으로 조성해야”

### 호남100년살림 민심센터 천정배 이사장 주최 수질개선 토론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서구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적절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8일 열렸다. 호남100년살림 민심센터(이사장 천정배)는 이날 풍암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풍암호수 수질 개선 대책 토론회'를 열고 광주시가 추진중인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에 대해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성기 조선대 명예교수(환경공학)는 "기계식보다 자연 정화방식이 바람직하지만, 풍암호 유입수로 1일 1000톤의 지하수를 확보하는 것은 곤란하고, 물순환 선도 도시 개발에 역행한다"며 풍암호 수질 개선을 위한 지하수 유입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은 전남대 교수(환경에너지공학과)도 "풍암호의 주 수원으로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이해관계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지하수 유입 활용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산강 수질이 개선돼 장래 활용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영산강물 유입 시설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수심을 2.84m에서 1.5m로 줄이는 방안은 토사퇴적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토사가 적은 양이라도 유입되면 호

수의 특징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적정 수심에 대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심이 얕아지면 수온 변화가 심하고 녹조발생 위험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광주시가 추진하려는 풍암호수 수질 개선방안은 호수에 토사를 투입해 수심을 최대 6m에서 1.5m로 낮추고, 담수량은 1/3로 줄이며, 영산강물 유입수를 차단한 후 풍암호 주변에서 관정을 파 지하수를 매일 1000톤씩 유입수로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천정배 이사장은 "풍암호수의 2배 크기로 수심 등 조건이 비슷한 서울의 석촌호수의 사례를 롤모델로 삼아 시민들이 수영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맑은 호수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풍암호 수질개선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되고, 미래세대까지 물려 줄 수 있는 미래 환경유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남 100년 살림 민심센터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광주시의 수질개선방안의 핵심인 매립방식과 지하수 유입에 대한 학계, 시민단체, 주민들의 견해를 종합해 광주시 등 관계 기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늘은 나도 요리사” 2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장애인 진로·직업 통합박람회'에서 장애인들이 요리체험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내년 녹색축산육성기금 200억 지원

### 전남도, 年 1% 저리 융자...다음달 22일까지 시·군 접수

전남도가 환경친화적 축산 육성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 200억원을 연리 1%로 저리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 축산물인증 농가, 식품안전관리(HACCP)인증 농가 등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판매장 개설자 등이다. 신규 축산농가도 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 친환경 축산물, 식품안전관리(HACCP)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은 농업인 및 법인 30억원, 축산물 유통·가공업 30억원이다. 운영자금은

농업법인 4억원, 축산물 유통·가공업 6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융자금 상환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는 12월 22일까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시·군 축산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최종 확정은 2023년 1월께 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더현대 광주’ 年 방문객 3천만명 유치”

### 현대백화점 그룹, 광주시 행정협의체 회의서 비전 발표

문화·복합물 '더현대 광주' 건립을 추진중인 현대백화점 그룹이 연간 3000만명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29일 오후 광주시 신활력행정협의체 전체 회의에서 더현대 광주의 비전과 개발 계획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더현대 광주는 북구 옛 전방·일신방직 터에 개발 추진 중인 챔피언스 시티의 핵심 시설 중 하나다. 행정협의체는 시와 자치구가 참여해 복합쇼핑

몰 입점 희망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법·행정·기술적 내용을 검토하고 원스톱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기구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광주의 변화는 더현대 광주로부터'라는 슬로건과 함께 연간 방문객 3000만명 유치 목표를 내놨다. 지난해 2월 여의도에 문을 연 '더현대 서울'에도 개점 1년간 3000만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더 현대 광주' 연간 목표 인

원 3000만명 중 절반은 광주·전남을 제외한 국내 지역, 중국·일본·동남아 등 해외 방문객으로 채우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룹 관계자는 "쇼핑·문화·관광명소인 더현대 서울의 성공 DNA를 바탕으로 야구의 거리, 역사 문화 공원 등을 갖춘 복합쇼핑타운 '챔피언스 시티' 내 다양한 문화 콘텐츠 공간들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며 "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대한민국 넘버원(No.1) 랜드마크로 더현대 광주가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협의체 회의에서는 현대백화점 그룹 측이 제시한 건립 계획과 상생 방안의 적정성, 건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이 논의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함께 일하는 세상,  
로 우리가 있습니다.

업무 개시일 2022년 11월 21일 (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장애이고용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로 고객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새로운 청사에는 광주디지털훈련센터(19층)가 함께 합니다.

새 청사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0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062-448-1199



광주지역본부



취업지원부



기업지원부

찾아오시는 길



**교통편**

- 지하철 양동시장역 하차 (도보 400m) 1호선 이용
- 버스 천교 하차 시 (도보 90m) 59, 31, 71, 61, 65, 79, 177, 100,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번 이용